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38) (7/2/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2 장 인간의 비참한 상태, 1-2 절

전 6:2 -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눅 12:19 -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잠 19:1 -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전 2:17 -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시 42:5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디로 가든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일들이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합니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전 6:2).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며,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든 교황이든, 환난도 겪지 않고 걱정거리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 수많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큰 부자인데다가 권력과 명성도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눅 12:19). 하지만 눈을 들어서 천국의 부요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 뜬구름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부담스럽게 힘겨운 것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늘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의 행복은 많은 재물을 소유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잠 19:1), 적은 재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참한 일입니다(전 2:17). 신령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현세의 삶은 점점 더 괴롭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정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고 깨는 것, 일하고 쉬는 것 등을 비롯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몹시 비참한 일들이고 큰 고역이어서, 거기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모든 죄들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경험한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과 예상치 못한 막힘과 장애물을 경험한다. 심지어 나의 잘못과 상관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기도 한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이 경험한 다양한 환난의 모습들, 욥기의 말씀, 초기교회 성도들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경험한 고난은 우리 삶의 현실을 그대로 알려 준다. 성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며 당연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요 16:33).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모든 환난 위에 주님이 계시며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잠깐의 고통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다. 다윗은 시편 40 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시 40:1-2 -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 42 편의 저자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했다. 시 42:5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부러움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사람을 바라보며 교만해 지는 것도 문제지만,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며 낙심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 이유는 두 경우 모두 사람은 보았으나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비롯해서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갈망할 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으로 인해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이며, 내가 남보다 못해 보이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에 겸손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 세상의 것, 인간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순간이며 이내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약 4:14 -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에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금방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풀과 꽃과 같다고 하셨다. 사 40:6-7 - 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전 2:11 -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연약함을 이겨내고 없는 곳에 채워짐을 경험하며,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시 40:17)라고 고백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그 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세상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영적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오직 영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3. 여전히 영적인 암흑 속에 신음하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강력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악한 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진정한 영적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